

# 국내 첫 재활용 탄소섬유 국제표준 제정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공동 주도... 재활용 탄소섬유 시장 활성화 기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재활용 탄소섬유 지정체계가 국내 최초로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공식 승인을 받으며 재활용 탄소섬유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재활용 탄소섬유 지정체계가 지난 15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재활용 탄소섬유의 품질과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화되고 탄소중립 실현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항공기와 풍력발전 블레이드 등에 사용된 탄소섬유복합재의 재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 탄소섬유는 소재의 등급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부족해 상용화와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팀 최용기 팀장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서민강 원장이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참여해 표준 개발을 주도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재활용 탄소섬유 분야 국제표준 제정을 이끌면서 해당 소재의 품질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복합재료 산업에서 재활용 탄소섬유의 안전한 활용과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제표준 제정이 국내 재활용 탄소섬유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확산과 친환경 소재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재활용 탄소섬유 국제표준 제정은 대한민국이 친환경 첨단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을 확립하고 시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내 탄소소재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한국 피자' 경쟁력 세계 입증

### 전북 여성기업인 김소운 대표, 세계 피자 대회 챔피언 등극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완주군에서 정통 나폴리 피자 전문 브랜드 '불칸(VULCAN)'을 운영하는 김소운 대표가 세계적인 피자 대회인 'Caputo Cup World Pizza Championship 2026' 국가대항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대회에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단독 출전해 세계 각국 대표 선수들과 경쟁한 끝에 정상에 올랐다. 국가대항전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루는 부문으로, 개인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4월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세계피자선수권대회(World Pizza Championship Parma 2026)'에서도 클래식(Classica) 부문 세계 5위에 오르며 국제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피자의 수준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완주군에서 정통 나폴리 피자 전문점 '불칸(VULCAN)'을 운



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오랜 기간 피자 제조 기술 연구와 메뉴 개발에 힘써 왔다.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실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해 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소운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통해 한국 피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외식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 교류,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여성기업인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농업 분야 AI 서비스 협력 강화

### 농촌진흥청-대동에이아이랩,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과 대동에이아이랩이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농식품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확대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26 농업기술박람회'에서 대동에이아이랩과 농업 분야 AI 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대국민 AI 영농비서 'AI 이삭'과 대동에이아이랩의 농업 전문 AI 서비스 'AI 대동'을 연계해 농업인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실용적인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서비스 상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AI 이삭'이 제공하는 농업기술 정보를 'AI 대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동'을 통해 수집되는 농업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와 고객 의견, 통계정보를 농촌진흥청과 'AI 이삭'에 공유해 서비스 개선과 정책 활용에 반영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 통신 표준 기술인 MCP(Model

# 공공·민간 농업 AI Agent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26 농업기술박람회'에서 대동에이아이랩과 농업 분야 AI 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ontext Protocol)와 A2A(Agent-to-Agent)를 기반으로 상호연용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사항도 공동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농촌진흥청, AI 활용 양돈농가 현장 실증 착수

### 사료 섭취·활동량·기침 소리 분석해 이상 징후 조기 탐지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돼지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 기술의 현장 실증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김제와 천안 지역 양돈농가 2곳에서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 중인 이 기술은 육성·비육 단계의 돼지를 대상으로 한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활용해 돼지의 사료 섭취 행동과 활동량, 기침 소리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비접촉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활동량 감지 정확도는 91.4%, 기침 소리 감지 정확도는 91.3%, 사료 섭취 행동 감지 정확도는 90.0%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분석 성능을 보였다.

또한 연구진은 산업체와 협력해 축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내구성 카메라와 마이크 장치,

사용자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했다. 이번 현장 실증에서는 실제 양돈농가의 사육환경에서 발생하는 영상과 음향 데이터를 수집하고, 농가의 관리 기록과 비교해 건강 이상 징후 탐지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사나 성장 부진에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행동 특성을 분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기 경보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관리자가 모든 돼지를 일일이 관찰하지 않아도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인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를 비롯한 해외 학술지 3곳에 총 4편의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스마트 축산 양돈을 위한 돈군 건강 이상 감지 시스템' 관련 기술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나서

전북지방환경청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하구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나서며 수질 보호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19일 남원시 요천 일원에서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수기를 앞두고 하천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각종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해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전북지방환경청과 남원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요천 일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하천과 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수질 오염은 물론 수생태계 건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이전에 하천변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우 이후 발생하는 부유 쓰레기 역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정화활동 외에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7~8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부유 쓰레기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NH농협생명 전북총국, 상관초서 경제·금융교실 운영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이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과 금융 이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17일 전북 상관초등학교에서 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돈의 역할과 종류, 저축, 환율, 용돈 관리 등 기초 금융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용돈관리 게임을 활용해 소비와 지출, 저축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저축의



종류와 환율의 기초 개념 등을 설명하는 등 학년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육'은 초등학생들이 경제와 금융의 기본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